

# 〈小説家 丘甫氏의 一日〉에 나타난 패로디(parody)적 樣相考

尹 政 憲

##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맺음말 |
| 2. 작품에 나타난 패로디적 양상 |        |

### 1. 머리말

기성작품의 성과에 편승해 새로운 문학적 가치를 재생산해 내려는 기도의 일환으로 우리는 패로디(parody)를 들 수 있다. 흔히 “풍자적 모방”으로 간단히 일컬어지는 이 용어의 정확한 개념과 기능에 대해선 다소의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원래 민속시(folkverse)류를 노래 부르는 대신 구술하는 것이나, 텍스트 암송의 운율변조를 의미했던 이 비평용어의 개념은 근자에 들어, “어느 작가의 어휘, 사상 혹은 문체에 경미한 정도의 변용을 가해 이를 새로운 목적 또는 기성주제의 풍자와 조롱에 적용시키는 것”<sup>1)</sup>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목적이란 문구에 주목하게 되면 반드시 풍자적 색채를 띠지 않더라도 기성작가나 그 작품을 모방적으로 재현하는 일련의 연술방식을 폭넓게 의미하는 것이라 규정해도 별 무리는 없을 듯하다.

1) Joseph T. Shipley, *Dictionary of World Literary Terms*(Boston, The Writer Inc, 1970), p.231.

패로디는 기존 작품의 형식이나 특정한 문제를 존속하면서 거기에서 이질적인 주제나 내용을 치환하는 일종의 문학적 모방이다. 패로디스트는 문체, 어법, 리듬, 운율, 어휘 등의 문제에 있어서 패로디 되는 작품의 형식적 관습들을 가능한 한 밀접하게 모방함으로써 작품을 이뤘다.<sup>2)</sup>

이렇게 볼 때 패로디란 동일한, 혹은 유사한 틀 속에서 여하히 다른 문체의식을 파생케 하는가에 그 성립의 관건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학, 특히 소설이 궁극적으로 작가의 현실해석 내지 그 대응방식을 허구적으로 보여주는 언표라 한다면, 소설작품의 패로디를 통해 나타나는 양자-기성작품과 패로디화된 작품-사이의 간극에서 우리는 작가의식의 한 단면을 분명히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서로 달리 나타나는 주제를 통하여 확실히 변별되는 작가의 의식과, 그러면서도 비슷한 소재와 형식을 다루게 되는 기술상의 측면을 통해선 작가의 기량을 의미 깊게 포착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에서 崔仁勳의 〈小說家 丘甫氏의 一日〉을 박태원의 〈小說家 仇甫氏의 一日〉의 패로디로 보고, 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패로디적 양상의 천착을 통해 이 작품의 문학적 성과까지를 가름해 보고자 한다.

## 2. 작품에 나타난 패로디적 양상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1969년 『월간중앙』과 1970년 『창작과 비평』에 연작의 형태로 발표되었고, 다시 1971년부터 72년까지 〈갈대의 사계〉란 제목으로 『월간중앙』에 연재되었다. 그 후 이를 재배열하

2) 퍼트리샤 워, 메타픽션(열음사, 1989), p. 95.

여 72년 삼성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76년 문학과 지성사에서 전집 중의 한 권으로 각각 출간하였다.<sup>3)</sup>

그간 이 작품은 그 관념적 성향으로 인해, 최인훈의 문학이 소설에서 희곡으로 나아가는, 장르의 분기점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sup>4)</sup> 이는 작가 자신의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문학적 주제를 집대성해 놓은 것”<sup>5)</sup>이란 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작중인물 구보를 통해 소설가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념의 파편을 집대성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한, 많지 않은 기왕의 논급도<sup>6)</sup> 주로 작가의식의 측면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작가정신의 측면과 이를 드러내는 기법적 장치의 측면을 효과적으로 통합한 일관성있는 연구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 감을 주고 있다. 본고는 이 작품에 나타난 패로디적 양상의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한다.

### 1) 인물의 성격

朴泰遠의 〈小說家 仇甫氏의 一日〉(조선중앙일보, 34. 8.1~9. 19)에는 일본유학에서 돌아와 무명소설가의 우울하고 답답한 습작시절을 보내는 주인공 仇甫가 등장하고 있다.

3) 본고의 텍스트는 76년판 문학과 지성사간의 최인훈전집으로 한다.

4) 권오만, 최인훈 희곡의 특질, 『국제어문』 1집 (국제대, 1979), p. 3.

이명희,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1987), p. 4.

5) 최인훈, 문학과 이데올로기(문학과 지성사, 1979), p. 396.

6) 김우창, 남북조 시대의 예술가의 초상,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문학과 지성사, 1976), pp. 341-352.

김주연, 분단시대와 지식인의 사랑, 『최인훈』(은애, 1979), pp. 74-98.

김인환, 과거와 현재, *Ibid.*, pp. 246-253.

소설가의 소설론, 『문학과 지성』 10(문학과 지성사, 1972. 12), pp. 852-853.

이명희, *op. cit.*

김외근, 소설가에 의한 소설, 소설가의 존재방식에 대한 탐색(문학정신, 92. 9) pp. 158-163.

스물여섯해를 길렀어도 종시마음이 놓이지 않는것은 자식이었다. 설혹 스물여섯해를 스물여섯곱 하는일이 있다드래도, 어머니의 마음은 늘 걱정으로 차리라. 그래도 어머니는 그가 작은 며누리를 보면, 이렇게 밤늦게 한가지 걱정을 덜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 이애는 왜 장가를 들려구 안하는겐구.」

언제나 혼인말을 끄내면, 아들은 말하였다.

「돈한푼 없이 어떻게 기집을 먹여 살립니까?」

허지만..... 어떻게 도리가 있느니라. 어디 월급쟁이가 되드래두, 두 식구임에 풀칠이야 못할라구.....

어머니는 어디 월급자리라도 구할생각은 없이, 밤낮으로,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고, 혹은 공연스리 밤중까지 쏘다니고 하는 아들이 보기에 딱하고, 또 답답하였다.<sup>7)</sup>

이렇듯 어머니의 근심을 뒤로 하고 집을 나와 목적지 없이 거리를 배회하게 되는 주인공 구보의 모습은 바로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이며 이 소설의 작가인 박태원의 자화상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당대의 작가 자신을 모델로 한 다분히 신변체험적 소설인 것이다. 일정한 직업없이 아침에 집을 나가 새벽에 돌아 오기까지 구보는 술한만상과 접하게 되는데, 여기서 당대의 제도적 직업권으로부터 일탈되어 소외된 식민지 지식인의 방관적 시선을 보여 주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의 소재는 구보가 작가 자신의 분신임을 입증하듯 작가의 실제 생활권을 벗어 나지 않는다.

仇甫는 다시 걷기로 한다. 여름 한낮의 죄악별이 맨머리 바람의 그에게 眩氣症을 주었다. 그는 그곳에 더 그렇게 서있을수 없다. 神經衰弱. 그러나 勿

7)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문창사, 1938), pp. 223-224.

論, 衰弱한 것은 그의 神經뿐이 아니다.……中略……

때마침 옆을 지나는 壯年의, 그 精力家型肉體와 彈力있는 걸음걸이에 仇甫는, 一種威脅조차 느끼며, 문득, 아홉살 짝에 집안 어른의 눈을 거어 春香傳을 읽었던 것을 뉘우친다.……中略……

便秘·尿意頻數·波勞·倦怠·頭痛·頭重·頭壓·森田正馬博士의 蝦鍊療法……그러한 것은 어떻든, 보잘것없는, 아니, 그 殺風景하고 또 어수선한 太平通의 거리는 仇甫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문득, 반자의 문이가 눈에 시그럽다고, 洋紙로 반자를 발라 버렸던 曙海道 亦是 神經衰弱이었음에 틀림없었다고, 이름 모를 웃음을 입가에 띄어보았다.……仇甫는 故人에게서 받은 『紅焰』을, 이제도록 한 페이지도 들쳐보지 않았던것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딱한 表情을 지었다.<sup>8)</sup>

이 작품 발표 당시, 실제로 26세의 총각이었던 작가 박태원은 24도의 근시 안경을 끼고, '3B水'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던 萬病客(신경쇠약, 중이염, 만성두통, 변비 등을 앓는)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홉 살 경에 이미 춘향전, 심청전, 소대성 등 고소설을 섭렵했으며<sup>9)</sup>, 〈탈출기〉, 〈홍염〉 등의 작품을 통해 당대의 빈궁문학을 대표했던 작가 최서해와 두터운 우정을 나누기도 했었다. 그러나 당대의 현실은 냉엄한 것이어서 일본 유학까지 마친 엘리트 박태원을 한갓 거리의 방관자로 내몰 뿐이었다. 1930년대는 급속한 근대화에 따른 직업의 분화로 이 구조 속에 수용되지 못한 많은 지식인 실업자를 양산해 냈는데, 특히 일본과는 달리 근대적 계급문화가 착실히 이뤄지지 않았던 식민지 조선의 경우, 이는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sup>10)</sup> 그리하여 역할을 배당받지 못하

8) 박태원, *Ibid.*, pp. 246-247.

9) 박태원, 춘향전 탐독은 이미 취학이전, 『문장』 2권 2호(1940. 2).

10) 김영도, 일제하의 사회계층의 형성과 변동에 관한 연구, 『일제하의 민족생활사』 (현음사, 1982), p. 624 참조.

고 아침에 집을 나가 새벽에 돌아오게 되는 방관적 지식인 작가 박태원을 낳게 했고, 이것이 그의 작품 속에 仇甫라는 인물로 형상화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바깥 세상의 체험적 물상을 통해 주인공이 갖게 되는 내성적 반응은 자신을 거리의 방관자로 내몬 시대현실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제도권으로의 병합욕구, 즉 당대의 사회구조 속에 같이 동참하고픈(자신도 버젓한 직업과 가정을 가진 사회인으로서) 현실안주에의 갈망으로 나타나게 된다.<sup>11)</sup> 따라서 仇甫란 주인공의 애편레이션(appellation: 命名)도 사회현실 속에 수용되지 못한 자신에의 侮蔑感, 自愧感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2)</sup>

최인훈의 〈小說家 丘甫氏의 一日〉에도 ‘소설노동자’로 자처하는 독신 작가 구보가 등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지 스물 다섯 해째가 될 무렵인 1971년 9월의 어느 날, 두시쯤 해서 보통 키에 약간 마른 편인 삼십대의 남자가, 서울에 있는 옛날에 임금이 쓰던 집의 하나인 경복궁 삼청동 쪽 담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다. 이때로 말할 것 같으면, 제2차 대전이라고 불리는 큰 싸움이 끝난 후에 크게 맞서서 이 지구의 우두머리 자리를 다투던 미국이라 하는 나라와 소련이라 하는 나라가 점점 사이가 부드러워지고 있던 중, 이번에는 오랫동안 사이가 나쁘던 미국과 중공이 화해할 김새를 보이기 시작하던 때이다.……中略……

…

각설, 그래서 지금 경복궁 담을 끼고 올라가는 남자도 그럴 만해서 이 길을

11) 권성우,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소설 연구(서울대 대학원, 1989), p.25 참조.

:주인공의 이러한 현실 수용 내지 방관적 자세로 인해 이 작품은 考現學的方法論(눈에 보이는 만상을 두루 살펴 일반의 공통된 정후나 현상을 잡아 이것이 마치 사회의 본질적 제요소인 것처럼 인식케 되는 사회고찰의 한 전형)을 소설창작에 원용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김윤식, 고현학의 방법론,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민음사, 1989), p.130 참조.

12) 仇甫의 의미를 逐字解釋하면 “원수같은 놈”이 된다.

걸어가고 있을 것만은 틀림없는 일이었다.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소설 노동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이름을 구보라고 하는 홀몸살이의 이복 출신 피난민이었다.<sup>13)</sup>

박태원의 구보가 26세의 작가 자신을 모델로 한 1930년대 식민지의 실직 지식인 작가로 그려졌다면, 최인훈의 구보 역시 30대 초중반(33세~36세)의 작가 자신을 모델로 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의 격동기에 걸쳐 있는 越南獨身作家的 모습으로 작중 현실에 참여한다. 1936년 함북 회령에서 출생한 최인훈은 함남의 원산고교 재학중 6.25동란을 맞게 되고 이때 가족 전원이 월남하게 된다. 그리고는 남한에서 상급학교와 군복무를 마치고<sup>14)</sup> 〈광장〉, 〈구운몽〉, 〈회색인〉 등의 발표를 통해 주목받는 작가로 성장한다. 특히 이 작품을 발표할 69년에서 72년 당시, 그는 이미 수십 편의 문제작을 발표한 누구도 부인 못할 우리 문단 중진소설가의 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구보도 당연히 당시의 작가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文名에 걸맞게 잡지사의 신인용모작 심사를 하기도 하고, 대학의 문학강연회에 연사로 초빙되는가 하면, 문단 선배의 출판기념회에 초대받기도 하는 등 문인으로서의 바쁜 나날을 보낸다. 그러면서도 독신<sup>15)</sup>의 보금자리인 하숙집을 아침에 나와 월남한 동향 친구 김순남씨를 만나기도 하고, 창경원을 찾아 동식물을 관상하기도 하며, 이중섭과 샤갈의 전람회장을 기웃거리기도 한다. 그리하여 문

13) 최인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문학과 지성사, 1988), pp. 147-148.

14) 월남 후 최인훈은 목포고교를 졸업하고, 피난수도 부산에서 서울법대에 입학하지만 57년 이를 중퇴하고 군에 입대, 63년 중위로 체대할 때까지 통역 및 정훈병과에 근무하며 창작활동을 겸한다. :김종희, 관념과 문학 그 곤고한 지적 편력(문학세계, 90년 봄), pp. 20-40 참조.

15) 최인훈은 70년 11월 17일 34세의 나이에, 이현구의 주례로 원영희와 결혼, 총각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그는 이 작품을 한창 써 나가던 무렵, 비로소 독신생활을 청산하게 된 셈이다.

단동료와 술잔을 나눈 후, 늦은 귀가를 하기까지 구보의 시야에 포착되는 모든 물상은 그의 관념과 사색의 자료로 활용되어 진다.

이 골목에도 음식점은 많이 있었다. 그들은 막연히 그 앞을 지나 걸어갔다. 도시라는 곳에는 골목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파는 집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 구보씨 모양으로 밖에서 사 먹는 일이 많은 처지고 보면 이런 일에도 보이는 게 많다. 대개 어떤 집에서 무얼 잘한다 하면 그리로 밀어닥친다. 아닌게 아니라 좀 입맛에 맞는 음식 솜씨가 알린다.……中略……도시의 음식점은 옷차림이나 굿거리, 놀이와 마찬가지로 돌림병 같은 것이다. <패션界>니 <예능界>니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음식界>라는 잡지가 왜 없는지 야릇한 일이다.……中略……방황하는 <식사의식>에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식사 근대화>의 긴급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이 구보씨의 믿음이다.<sup>16)</sup>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구보의 사물에 대한 의식적 접근이 박태원의 경우처럼 단순히 시대의 표피적 현상에 경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시대적 명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라 할 수 있는 1969년에서 1972년까지의 기간은 6.25 이후 고착되어 있던 이 땅의 분단 이데올로기가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공의 화해 무드에 힘 입어 새로운 양상으로 전환될 때였던 만큼 이러한 역사적 변혁기에 선 지식인 작가의 시각도 더 이상 피상적 인식의 수준에 머무를 수는 없게 되었던 것이다. 작품 속의 소재로 다뤄지고 있는 술한 시사적 사건들, 즉 키신저의 중공 방문, 이산가족 찾기 남북적십자회담, 군최수의 집단무장탈영난동이었던 실미도 사건, 중공의 유엔가입, 닉슨의 소련 방문과 월남전 협상, 장안에 퍼진 수도천도설, 그리고 71년 10월의 대학가에 내려진 위수령 등을 통하여 주인공 구보는 나름의

16) 최인훈, *op. cit.*, p. 259.



현실대응방식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당대를 살아 가는 직업작가인 구보의 정치관, 예술관으로 연결된다.

구보씨는 금년 들어 신문을 들여다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어느덧 이해도 반이 되었다. 그만큼 1971년의 첫 반쪽은 사건이랄 만한 것이 많았다. 먼저 4월과 5월에 있었던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가 있다.……中略……구보씨는 지난 세월 동안에 번번이, 예의 내 다서는 신문 일면을 읽으면 개손자놈이다. 이렇게 해마다 해밀이면 반성을 한 것이었으나 실지로는 해마다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구보씨는 스스로 대통령이 되고 싶다거나 국회의원 되고 싶은 마음은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나 예술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그쪽 방면이 개운치 않으면 늘 제가 하고 있는 예술이라는 직업에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럴 때는 예술가도 남을 보살피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구보씨가 택한 길은 진짜로 팔을 걷어붙이는 (그의 가냘픈, 그러나 우아한 팔 말이다) 길이 아니라 〈글 속에서〉 팔을 걷어붙여 보자는 길이었다. 보자는, 이라고 하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속마음인즉 그러했는데, 실지로는 〈글 속에서〉도 얼마 팔을 걷어붙이지 못했다는 것이 구보씨의 반성이었다.<sup>17)</sup>

그러나 구보의 이러한 적극적 현실인식은 어디까지나 관념 속의 그것으로서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자신이 '소설노동자'로 자처하듯이 그는 다만 영세 수공업자의 끊임 없는 잔일의 생활만을 가능케 하는 사회역학의 주변적 인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sup>18)</sup> 하지만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분단현실을 담보로, 실제로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던 당대의 고압적 국내 정치상황을 이만큼이라도 함축할 수 있었다는 데서 박태원의 작품에서와는 변별되는 최인훈의 丘甫<sup>19)</sup>를 실감할 수 있게

17) 최인훈, *Ibid.*, p. 114.

18) 김우창, *op. cit.*, pp. 343-344 참조.

된다. 그러면서 丘甫는 정치 및 사회의식은 있으나 그 현실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자신의 작가적 입장을 종교, 특히 불가에의 가능성 제시를 통해 대변해 보이고 있다.<sup>20)</sup>

이렇게 볼 때, 뚜렷한 對社會觀 없이 30년대의 꺾박한 식민지 현실 속에서 소외된 한 지식인 작가의 현실포용욕구를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삼고 있는 박태원의 구보와 막연하나마 작가의 정치의식의 일단과 그 지향점을 보여 주고 있는 최인훈의 구보는 사실상의 작가 자신이 등장하고 있는 작품 속에서 그 분명한 현실인식의 간극을 노정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이미 박태원에 의해 시도된 양식(실명소설가의 분신이랄 수 있는 작중인물의 신변취재를 통해, 창작관행상 시대현실과 결코 유리될 수 없는 소설가의 당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질서정연하게 표출해 보이려는 소설적 탐색과정의 형상화)에 의탁해 더욱 의미 깊고 효과적으로 소설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천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시공간적 배경의 의미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주인공 구보는 아침에 집을 나와 익일 새벽 2시 경 귀가하기까지 만 하룻동안 무려 18군데의 노정을 밟게 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집-천변길-종로 네거리-長谷川町으로 가는길-경성 역-조선은행 앞-다방 안-종로거리-다방-식당-길-다방-길-카페-종로 네거리-집으로 향하는 길”의 형태로 가시화할 수 있

19) 丘甫를 逐字解釋하면 “언덕에서 관망하는 者”로 유추할 수 있다. 즉 다분히 自嘲的인 仇甫에 비해 丘甫란 애펠레이션은 대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 규명 의지를 상징케 한다.

20) 이 작품 속에서, 구보는 따분한 일상의 돌파구를 교외 사찰에서의 범신 스님과의 해후와 대화에서 찾고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의 에피로그로 제시된 작중소설의 명상에서도 불교에의 귀의를 궁극적인 이상(사랑을 통한 이 세상의 재확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sup>21)</sup> 하루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 속에 일제에 의해 타율적으로 근대화되어 가던 1930년대, 경성의 도시공간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작품에서 의도되는 주된 과제는 주인공 구보의 도시 배회를 통한 近代都市相의 공간적 포착인 것이며, 이에 따라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반감하게 된다. 18번의 노정을 거치는 동안 그 속에서 목격되어지고, 조우하는 사건과 인물을 통해 구보는 도시 공간의 편린들을 자신의 뇌리에 편입시키게 되고, 다시 이를 당대 만상의 나열이란 방관적 관념의 도구로 활용하게 된다.

### 茶 房 의

午後 두時, 일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 藤椅子에 앉아, 茶를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이야기를 하고, 또 레코-드를 들었다. 그들은 거의 다 젊은 이들이었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그 젊음에도 不拘하고, 이미 자기네들은 人生에 波勞한것 같이 느꼈다. 그들의 눈은 그 光線이 不足하고 또 不均等한 속에서 矚사어 없이 제각각의 憂鬱과 고달픔을 하소연한다. 때로, 彈力있는 발소리 가 이 안을 찾아들고, 그리고 豪華로운 웃음 소리가 이 안에 들리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茶房에 깃드린 무리들은 그런것을 업신여겼다.<sup>22)</sup>

위의 인용에서 보는 바처럼, 구보가 대하게 되는 외부의 대상은 그의 방관적 자의식의 자료로 활용되어 내면의식을 구체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방이란 근대적 공간의 디테일이 야기한 비자발적 인식의 연쇄적 확산, 그것이 바로 다방 자체의 공간구속적 특성(space bound)에 기인한 것이란 사실이다. 다시 말해 작품 속에서 구보가 접하게 되는 공간내적 체험은 그대로 주인공의 잠재해 있던 인식 및 기억이 내부성찰

21) 강혜원, 박태원 소설의 서술구조 분석, (이화여대 대학원, 1988). p. 344 참조.

22)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op. cit.*, pp. 241-241.

로 향하게 하는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케 하는 것이다. 이는 시간의 사장과 공간의 부상으로 특징지어지는 주인공의 도시나들이가, 즉흥적 연쇄의식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깊이있는 현실인식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방관적 관념의 수준에 머물게 되는 중요한 한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sup>23)</sup>

최인훈의 작품에서의 丘甫 역시, 매일같이 아침에 집을 나가, 수 많은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보조인물 내지는 목격자가 되어 대부분의 시간을 수도 서울의 도시공간에서 보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일은 이 작품, <小說家 丘甫氏의 一日>에서의 하루는 박태원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자연적 시간, 즉 24시간으로서의 하루가 아니라는 점이다.<sup>24)</sup> 모두 15장으로 이루어진 이 소설에서의 정확한 자연적 시간은 1969년의 동짓달부터 1972년의 5월 사이에 걸쳐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근 2년 6개월여에 걸친 소설가 구보의 행장이, 하루 내지는 며칠동안의 구보의 신변에서 취재된 4계절에 걸친 에피소드의 나열로 이뤄진 각 장들의 통합을 통해 “소설가 丘甫의 하루”라고 하는 상징적 일상성의 이미지를 구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소설가라고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두뇌를 가진 현대인 구보의 하루 일과(소설이란 그의 업과 직간접적 관련양상을 맺고 있는)가 모여서 결코 별 다를 것이 없는 한 달동안의 그의 생활양태를 규정하게 될 것이고, 다시 이것들이 모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에 걸친 1년동안의 구보의 모습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는 구보의 일생을 관통하는 중요한 특질인 그의 직업을 둘러싼 변함 없는 일상성으로 고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각 장의 시공간성을 드러내는 몇 구절들을 대비해 보면 확인해진다.

23) 졸고, 박태원소설연구(영남대 박사학위 논문, 1991. 6), pp. 42-45 참조.

24) 이 점에 대해선 이미 김우창을 비롯한 여러 평자들이 언급한 바 있으며, 특히 이명희(인하대 교육대학원, 1987)의 논문에선 이 작품에 나타난 시간의식을 주체적 양상, 형식적 양상, 언어적 양상으로 3분해 상술하고 있다.

어느 봄날, 소설가 구보씨는……中略……집을 나와 원남동 쪽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수요일이었다. -제2장 “창경원에서”-

1971년 초여름의 어느날, 소설가 구보씨는 〈石窟庵〉에 들어섰다. -제4장 “위대한 단테는”-

장막가 개인 어느날 아침 소설가 구보씨는 집을 나섰다. -제5장 “홍콩 부기우기”-

청계천 초입에서 버스를 내린 구보씨는 조금 걸어갔다. -제6장 “마을이여 아무져다오”-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지 스물 다섯 해째가 될 무렵인, 1971년 9월의 어느날, 두시쯤 해서 보통 키에 약간 마른 편인 삼십대의 남자가, 서울에 있는 옛날에 임금이 쓰던 집의 하나인 경복궁 삼청동 쪽 담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다. -제7장 “노래하는 사갈”

1972년 정월 초순의 어느 아침의 일이다. 서울 청진동에서 안국동으로 빠지는 골목의 초입인 숙명여학교 앞길을 걸어가는 한국인 중년 남자 하나가 있었다. -제11장 “겨울뉘시”

1972년 2월 하순의 어느 날 오후, 소설 노동자 구보씨는 이 눈발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친구의 사무실이었다. -제12장 “다시 창경원에서”

1972년 어느 봄날 오후였다. 소설 노동자 구보씨는 광화문 시민회관 앞에서 버스를 내렸다. -제13장 “남북조시대 어느 예술노동자의 초상”-

1972년 4월 중순의 일이다. 서울 광화문 시민회관 앞에서 한 중년의 한국인

남자가 버스에서 내렸다.

-제14장 “홍길례진 나스래동”-

각 장의 모두에서 인용된 윗글들은 구보가 그의 하숙집을 나서-주로, 당대 서민들의 가장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이었던 버스를 이용하여-서울 도심의 외부세계에 사건의 시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스토리가 전개됨을 보여 주고 있다. 판에 박힌 듯한 그의 이러한 일상성은 아침 잠자리에서 깨어나 뒤척이는 구보의 하숙방으로부터 시작되는 다른 장(1, 3, 8, 9, 10, 15)에서의 그것과 함께 이 작품의 불가결한 시공간적 배경으로서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매너리즘과 자기 안일에 빠지기 쉬운 이러한 도식적 행태 속에서도 구보는 지식인 작가 특유의 통찰력을 잃지 않고 자신이 접하는 매일의 물상을 통해 나름의 현실대응방식을 제시한다.

대학의 문학강연회장에서 그는 환경론에 대한 작가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고, 창경원의 동물원 우리 속에 갇힌 호랑이를 통해 우리 정치현실의 현주소를 유추해 보기도 한다. 남북이산가족찾기 회담의 제의 와중에 터진 실미도 사건을 통해서는, 월남실향민의 부편 기대 속에서도, 아직은 꿈일 수밖에 없는 통일에의 허상을 냉철히 읽어낸다. <술저블루>란 영화를 보면서, 여주인공의 행위를 통해 역사의식을 떠올리기도 하고, 자신에게 배달된 젊은 시인의 유작시집에서 죽음에의 강한 흡인력을 체감하기도 한다. 서양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앞에 줄지어 선 사람들을 보면서 주체적 문화의 실종을 탄식하기도 하고, 사갈의 미술작품 전시회장으로 향하면서 예술표현의 자유를 반추해 보기도 한다. 그리고 이중섭의 전시회장에선 그의 예술혼을 부러워 하며, 같은 예도를 걷는 자신의 분발을 다짐한다. 그러면서 구보는 평소 생활에서 얻은 온갖 번뇌를 하숙집 뒷뜰을 산책하며 얻은 영감으로 정화시키면서 이의 해결책으로 불교예의 귀의를 주창한다.

이처럼, 뚜렷한 핵심사안 없이 하루동안의 견문을 토대로 30년대 서울의 도시공간을 총체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친 박태원의 구보와는 달리, 최인훈의 구보는 15개의 분절로 나누어진 개체적 시공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도 충분한 사유의 여지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丘甫는 복잡다단한 70년대의 다양한 풍속도를 분절화된 시공을 통해 사안별로 깊이있게 제시하면서, 자칫 우리의 시야 밖으로 밀려나 버릴지도 모를 현실문제의 뒤편길을 중점적으로 조명해 보이고 있다. 각 장별로 부각 제시되는 시공간적 배경은 구보의 정치·사회의식 나아가 문명의를 검증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0년대 허울 좋은 고도성장의 기치 아래, 개아의 민주역량이나 인권의식을 보살필 겨를이 없었던 당대 모든 지식인을 대변하는 구보는 주체적 자각 아래 끊임없이 자문자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공적 배경은 구보의 의식을 심화시키면서도 그 균형 있는 절제를 위해 효과적으로 원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인공의 잠재해 있던 극히 개인적인 기억의 즉흥적 돌출에 원용되었던 박태원 작품에서의 시공간적 배경의 역할과 달리, 최인훈 작품에서의 시공간적 배경은 시대현실에 초점을 맞춘 의식있는 지식인의 책임있는 자아탐구과정의 지표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 3) 그 밖의 양상들

〈小說家 丘甫氏의 一日〉에서 구보는 주로 소설가의 직무수행과정으로서의 외출을 통해 그의 의식의 일단들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때 주변 풍물 못지 않게 그의 의식인각작용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그가 접하게 되는 신문기사의 내용들이다.

닉슨政府 경악/(워싱턴 25日 AP合同 本社特約) 美國의 逆重要事項決議案  
이 25日 밤 總會에서 부결되자 닉슨政府는 경악했다. 이날 낮까지만도 美國

관리들은 소위 逆重要事項決議案이 통과되리라는 확신을 表明했다.

에익 〈袖哥놈〉하고, 구보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中略……구보씨는 〈닉 슨政府 정약〉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공갈〉하고 역시 속으로 중얼거렸다.<sup>25)</sup>

시대상 반영을 위해 이야기 사이에 도안을 삼입해 넣는 뉴우스리일 (newsreel)기법<sup>26)</sup>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장면의 제시는 곧 구보의 정치의식을 현시화시키는 도화선이 된다. 여기서 逆重要事項決議案이란 1971년, UN총회에 상정되었던, 대만의 축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중공의 UN가입을 기획한 案을 말한다. 그러나 이 안의 발의자인 미국도, 실상은 이의 통과를 크게 기대하지도, 이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경주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당대의 정세를 분석하는 구보씨의 판단이다. 따라서 워싱턴발

昊	昊	昊	若	水	一
剝	那	安	丁		日
					三
					回
					分
				二	服
				0	
四,	二,	二,	四,	0,	二
					日
0	0	0	0	0	分 <sup>27)</sup>

25) 최인훈, *op. cit.*, pp. 182-183.

26) 이강언, 1930년대 모더니즘소설연구(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87), pp. 92-94 참조.

27)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op. cit.*, p. 228.



의 외신기사로 보도된 미국정부의 경악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제스츰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도식적 의장의 삽입은 박태원의 〈小說家 仇甫氏의 一日〉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다.(앞의 그림 참고)

한낮의 길거리에서 신경쇠약증의 구보가 떠올리게 되는 藥의 처방전이 입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만병객 구보의 뒤숭숭한 심사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다시 없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仇甫의 개인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므로 최인훈의 仇甫에 이르러서야 그 공동체적 시대현실의 시사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실존인물인 작가 자신을 모델로 삼는 데서 비롯되는 이 소설의 사소설적 성격은 소설가인 주인공의 생활권역 설정을 통해 더욱 분명해짐을 알 수 있다. 즉, 소설가 구보가 주로 출입하게 되는 처소는 문단 주변의 한정성을 벗어나지 않아서, 신문사, 잡지사, 문학강연회장, 출판기념회장, 전시회장 등 평소 작가 최인훈의 궤적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작품 속에서 구보의 文友로 둔갑하는 최인훈의 文壇知己들에 대한 의살스러운 애편레이션(appellation)이다.

김관씨부터 시작했다. 그는 60년대에 나온 신인들의 문학 세계를 숨씨있게 소개하였다.……中略…… 구보씨는 이 자기보다 약간 후배이지만 거의 문단생활을 같이 시작한 불란서문학 전공의 비평가를 새삼스레 쳐다보았다.……中略……

다음에는 이동기 시인이 했다. 그는 지난 십년의 한국시가 여러 문학세대의 연립(聯立)이었다고 말하면서…….<sup>28)</sup>

구보와 함께 문학강연회의 연사로 초빙된 김관과 이동기는 문단의 실존인물 김현과 이형기를 지칭하는 것임을 최인훈 주변의 일상성을 유추

28) 최인훈, *op. cit.*, p. 10.

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작품 속에서 원로시인 金廣攝의 〈성남동 까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데, 이 역시 金瑠燮의 〈성북동 비둘기〉를 뜻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무수한 실존인물들과 이에 연관된 각종 명칭들이 유사하게 변형되어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다. 이는 작품 속에서, 자신의 知己들을 實名 그대로 등장시키거나 不特定名稱으로 다루고 있는 박태원의 경우와는<sup>29)</sup> 또 다른 변별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칫 신변잡담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 소설의 년픽션적 성격을 보완하여 본연의 허구성으로 환원케 하려는 작가의 세심한 노력이 돋보인다.

이 외에도 〈小說家 丘甫氏의 一日〉에서는, 박태원의 소설 〈小說家 仇甫氏의 一日〉을 효과적으로 패로디한 다양한 양상들을 엿볼 수 있다.<sup>30)</sup>

### 3.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패로디로 보고 그 구체적 양상을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최인훈의 丘甫는 박태원의 仇甫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나, 시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소명의식없이 30년대 경성의 만물상을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삼고 있는 仇甫와는 달리,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적으

29) 〈小說家 仇甫氏의 一日〉에는, 최서해, 최득건, 윤백남 등의 실명과 〈홍염〉, 〈승방비곡〉, 〈대도전〉 등의 실작품명이 사용되고 있으며, 김기림을 시인이면서 신문사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는 벗이라고만 소개하고 있다.

30) 가령 박태원의 소설에서 이미 시도되고 있는 주인공의 원점회귀적 여로라든지 관념적 어휘의 나열과 이에서 기인한 만연체의 문장, 접안된 사물을 관념의 자료로 활용하는 연상적 수법 등이 최인훈에 의해서도 빈용되고 있으나, 최인훈의 경우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주인공의 시대현실을 투시하는 주제적 잣대로 활용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로 격동의 현상이었던 70년대를 살아가는 지식인 작가로서의 나름의 현실대응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 시공간적 배경을 비롯한 여러 요소들이 최인훈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어 재창조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이것은 일제하의 강압적 시대상으로 압축될 수있는 30년대의 여건과, 어쨌든 자유주권 국가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70년대적 사회상과의, 분명한 정치여건상의 간극에서 기인된 것으로 상정된다.

본고에서 간과된 문제점들은 계속된 연구를 통해 보완하려 한다.